

Vol. 74

www.hwashin.co.kr

# Hwashin News Letter

##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 Hwashin News Letter

# Hwashin News Letter

# Hwashin News Letter



2026 / 01

# CONTENTS

## 2026 / 01

# 05

## TOP & TOPIC

기 획 테 마 1	CEO 신년사	05
기 획 테 마 2	해외 법인장 신년사	09
INSIDE	화신	15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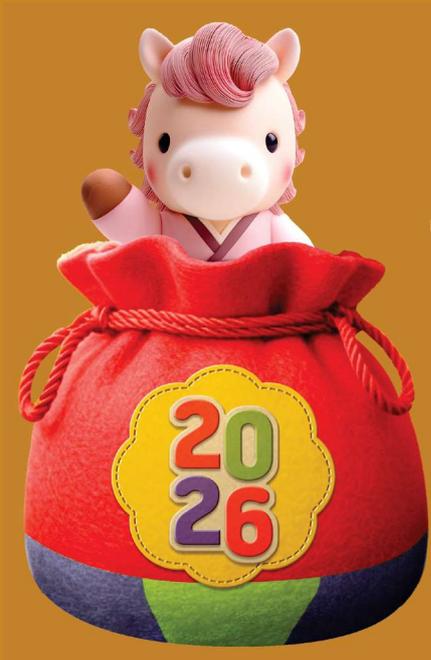
## PEOPLE & TALK

기 자 의 이 슈 특	독감 유행 중! 뭐부터 챙겨야 할까?	23
프로의 다이어리	버디를 꿈꾸는 직장인의 골프 입문서	29
화 신 영 리 더	'건강한 화신 문화의 중심, 함께 달리는 저스트렌'	35
오 피 스 절 친	서로 다른 자리, 같은 마음	40
화신 인스타그램		43

# 41

## VIEW & FUN

동 행 의 기쁨	'우리는 뉴시를 해도 그냥 하지 않는다'	45
Car트렌드분석	2026년 전기차 시장 전망	51
트 렌 드 돌 보 기	로봇 트렌드 분석 : 휴머노이드, 시가 심장을 만나다	57
편 집 후 기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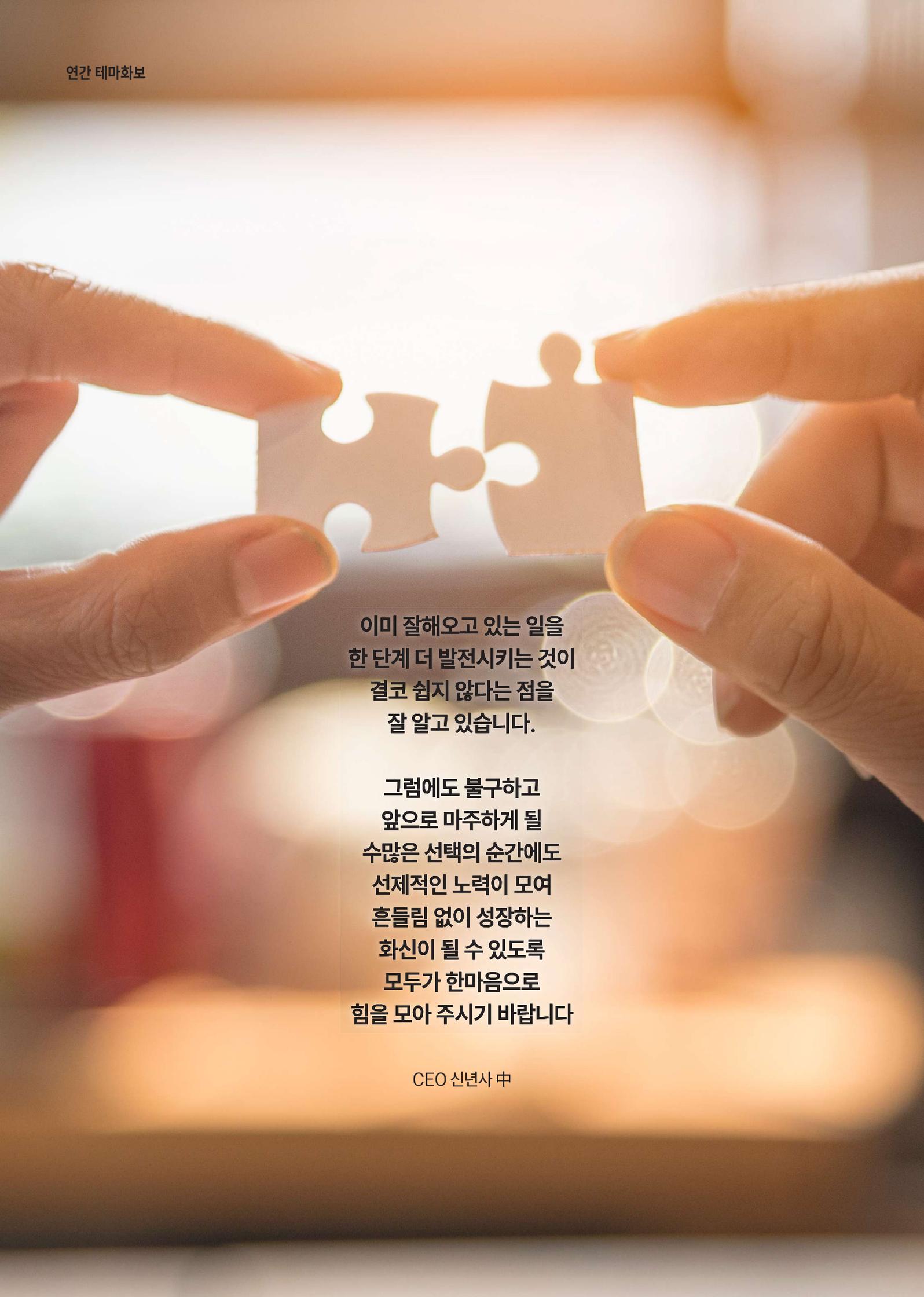


내 마음의 창문을 열어  
가장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아는 당신의 소망들이  
올해는 꼭 눈부신 꽃으로 피어나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가장 행복한 풍경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의 기도 - 이해인작]

A close-up photograph of two hands holding two interlocking puzzle pieces.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bokeh of warm, golden light. The puzzle pieces are white and have a simple, abstract shape. The hands are positioned on either side of the pieces, with fingers gently gripping them.

이미 잘해오고 있는 일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모여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CEO 신년사

# 변동불거(變動不居)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 2026년, 병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화신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화신 가족 여러분!

전문가들이 선정한 지난 2025년 한 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라고 합니다. 이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라는 의미로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오늘의 경영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권 교체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리스크가 맞물리며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연 2%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친환경차 전환은 매년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한편 해외 신공장 운영 준비를 본격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관세와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고객사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화신은 당초 목표한 바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었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과 인도 푸네 공장 역시 제반 준비를 마치고 신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새로운 과제와 책임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신의 의미 있는 2026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네 가지 경영방침을 중심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품질 경쟁력 기본 재정립’입니다.

품질은 제조 기업의 근간이자 고객과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입니다. 화신이 그동안 시장에서 인정받아 왔고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품질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치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법인 품질 이슈를 되돌아보면, 기본이 흔들릴 경우 그 영향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한다면 작은 균열이 반복되고 결국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봉합하는 데 그치기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처럼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 원인을 짚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질은 특정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 모든 업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 속에서 품질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품질 경쟁력은 흔들림 없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 두 번째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다크 팩토리, AX, AI 등의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등장하면서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도 AI 기반 기술이 설계, 생산, 품질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되며 그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속도를 조율하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술 활용 방식에 따라 회사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신의 미래 제조 역량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주체적인 변화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 번째로 ‘지속 경영 가능한 원가 구조 구축’입니다.

지난 몇 년간 화신은 안정적인 생산 실적과 적극적인 투자 기회를 바탕으로 유의미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값진 결과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지금의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원가 구조와 효율성 측면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소한 경비에서부터 재료비에 이르기까지 제조 전반의 원가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원가 구조 구축을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이 강한 기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100년 기업 기반 안정화'입니다.

지난 이맘때 우리는 다가오는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화신이 걸어온 시간을 함께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을 맞아, 다음 50년을 준비하며 100년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날 기업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단순한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의 준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성장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하는 안전, 환경, 윤리와 같은 핵심 지표들은 제도나 시스템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모여 비로소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만큼 각자의 고민과 노력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범위를 함께 확장해 나가며 조직 전반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의 충실한 이행과 내부 역량의 고도화가 함께 어우러질 때, 화신은 창립 50년을 넘어 한 단계 성숙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화신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로, 강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상징하는 해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영 환경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행동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최근 '레디코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Ready의 준비와 Core 핵심의 합성어로 변화의 속도와 미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핵심 역량과 기본 체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준비된 조직은 다가올 불안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자 미래 성장 기회를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화신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업력 역시 여러분의 준비와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미 잘해오고 있는 일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모여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주시는 모든 구성원 여러분과 협력사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상 받은 모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뜻하신 바 이루고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5일  
대표이사 사장 정서진





인도첸나이법인장  
김 성 태 전무

# 인도첸나이법인 신년사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인도법인의 지속적 성장과 연속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화신 임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인도법인은 안정적인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을 목표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 인건비율 저감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네 지역 HMI 신공장 런칭에 따라 인도 푸네 법인을 설립하였고, 10월부터 QU2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 뿐만 아니라, 화신의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이어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대·내외 경영 환경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의 인도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인도 로컬 OEM의 급격한 성장, 글로벌 OEM의 신규 진출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6년 인도법인은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보다 단단한 사업 체질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첫째, 신규 차종 양산 조기 안정화

2026년 인도법인은 SP3i 양산을 시작으로 MQ4i, HE1i, BC4i, SX3i 등 신규 라인 설치 및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차 설치 면적 확보를 위해 라인 복합화 및 축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치 및 시운전 단계에서 원활한 현지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양산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인도법인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지속 경영 가능한 원가 구조 구축

최근 고객사는 신차 수주 단계에서 현지 로컬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현지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법인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금형/설비 업체를 활용한 현지 수준에 맞는 공정 구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품질, 수익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셋째, 품질 관리 체계 고도화

인도법인의 입고품질 지수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6년에는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 및 강화하여 목표한 입고품질 지수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오년 (丙午年) 붉은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정직한 발걸음으로, 도전 앞에서는 과감하게, 기본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법인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알라바마법인장  
전 재 학 상무

# 미국알라바마법인 신년사

##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변화무쌍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은 외형적 성장을 넘어,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에 알라바마법인은 올해 경영 슬로건을 ‘내실과 기본 다지기’로 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1. 기본 프로세스 준수로 고객의 굳건한 신뢰 확보

모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표준과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2. 기본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

품질은 제조 기업의 생명이자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품질 관리부터 다시 점검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불량 제로를 목표로 품질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품질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 3. 끊임없는 교육 훈련으로 업무 역량 강화

기업의 미래는 곧 인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실무부터 리더십 역량까지,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되는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 4. 100년 기업을 향한 흔들림 없는 안정된 기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족함에 대한 진솔한 성찰입니다. 지난해의 진통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눈앞의 숫자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성’에 집중하여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음 100년의 초석을 알라바마법인이 준비하고 실행하겠습니다.

### 사랑하는 화신 가족 여러분,

화려한 기교보다 더 강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반복’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미국 알라바마 법인 전 임직원은 ‘내실’이라는 내공을 쌓고 ‘기본’이라는 원칙을 지켜내며, 화신의 백년대계를 잇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알라바마법인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조지아법인장  
김성기 상무

# 미국조지아법인 신년사

화신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새해를 맞아, 조지아법인을 대표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지아법인은 신규 공장 건설과 준공, 그리고 KaGA 신차 LQ2 양산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많은 도전과 변화의 시간을 함께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본사의 아낌없는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준 조지아법인 임직원 및 본사 지원 인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조지아법인은 LQ2부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Rivian R2 전기차, NQ5a HEV 그리고 Ford P833 차량의 부품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와 준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인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정적인 양산 운영 체계 구축 그리고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조지아주와 카운티, 그리고 더블린시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며 더욱 단단한 조지아법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6년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경법인장  
이 정 호 상무

# 북경법인 신년사

## 화신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에도 한 마음으로 북경화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총경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격변을 경험했습니다. 신에너지차의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중국 현지 브랜드의 공세와 가격 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변화의 흐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에 북경화신이 나아가야할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첫째, 양적 성장의 토대 마련입니다.

북경화신은 2017년부터 시작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변모하여 지금까지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 왔습니다. 이제는 내실 경영에서 한발 나아가 양적 성장을 도모할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기존 고객의 수주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신규 고객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여 북경현대, BYD 외의 추가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나 차근차근 우리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의 노력과 도전을 통해 북경화신의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지속 경영을 위한 원가 구조 개선입니다.

원가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극한의 가격경쟁이 일상이 된 지금, 북경화신은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현지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격히 추격해오는 현지 업체의 기술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기술력과 원가경쟁력 두가지를 모두 갖춰야합니다. 북경화신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생산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원가구조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변화 대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시장의 변화 속도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릅니다.昨天的 성공이 오늘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북경화신이 설립된 지 이미 23년이 된 만큼, 우리 조직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 사고와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 화신 가족 여러분,

2026년은 북경화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도 도전적인 외부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금껏 그랬듯 우리의 역량을 모아 위 세가지 방침을 잘 실천한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북경화신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화신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앞날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베트남법인장  
김 태 곤 책임

# 베트남법인 신년사

존경하는 화신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 베트남법인은 베트남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에 따른 현대차 판매부진으로 어려운 한해를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영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은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탄공화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베트남 탄공화신이 나아갈 4가지 중점적 운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기본을 지키는 품질활동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품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화신의 자부심입니다. 완벽한 품질 기반이 없으면 신규 사업의 기회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각오로 원칙과 기본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화신만의 무결점 품질 체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항상 고객사로부터 신뢰받는 베트남 법인이 되고, 신차 및 샤시 부품 추가 개발에도 신뢰 할 수 있는 협력사가 되겠습니다.

## 둘째, 지속 경영 가능한 원가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BN7 엑센트의 판매 부진속에서 우리는 생존 경영을 위해 인원 운영의 효율화와 자재 및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여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업무 능력 복합화를 통한 1인 2역이 가능하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 복합 교육을 통해 간접 인원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로 신규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법인 운영의 유연한 인원 운영 및 수익성을 확보를 위해 도장라인 투자 및 생산 설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생산 역량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관세 이슈를 역 이용한 멕시코 수출 물량 확대 등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환경에 임하겠습니다.

## 넷째,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하는 화신과 함께하는 베트남법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베트남법인은 베트남 현대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라 베트남 및 동남아 자동차 시장 전반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지속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법인은 과감한 투자와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도전을 할 것 입니다. 항상 임직원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발전하는 탄공화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6년은 베트남 탄공화신에게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 해 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력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법인  
김해용 상무

# 브라질법인 신년사

##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화신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역시 브라질은 정부의 고금리 기조와 환율 변동성,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법인은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흑자 기조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은 우리 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BC4B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 그리고 이를 통한 수익성 확보는 올해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매출 확대가 아니라, 이익이 남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과는 이익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브라질법인은 다음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첫째, “BC4B 신차 성공적 대응”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BC4B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양산입니다. 공정과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 하여 고객 신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는 매출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수익성에 두고, 지속 가능한 성과는 이익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겠습니다.

### 셋째, “품질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입니다

품질은 비용이 아니라 경쟁력입니다. 작은 공정 하나, 작은 기준 하나가 곧 회사의 미래입니다. 브라질법인 모든 부서가 품질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 넷째, “표준과 프로세스에 기반한 실행력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그리고 실행 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 조직의 운영 완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브라질법인의 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완벽한 BC4B 양산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브라질 법인을 만드는 것이 2026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끝으로 화신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INSIDE 화신

화신 / 화신정공 / 해외법인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국가과제 기획 및 수행 등 협력논의

8월 5일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 홍보대사(David Roden)를 초청하여 영천시 하이테크파크지구 중요사업장인 화신 하이테크파크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도에서 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1팀장 외, 시에서 경제환경산업국장, 기업유치과장 외 관계자들과 (주)화신 류우성 상무, 생산2부·EV스트러처팀·설비관리3팀·총무팀 각 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미팅을 가진 후 함께 화신 하이테크파크공장 용접 및 조립라인 등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 02 2025년 ISO14001/45001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주)화신은 2025년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외부기관(KIWA Korea)에서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언하공장, 기술연구소, 봉동공장, 하이테크파크공장, 예산공장을 대상으로 전 공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서 관리와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고객으로부터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 신뢰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심사는 환경안전보건분야로부터 고객의 신뢰성을 받기 위해 매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하고있다.



## 03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국가과제 기획 및 수행 등 협력논의

8월 18일 (주)화신 기술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이건우 총장 외 4명이 영천시청에서 양석수 경제환경산업국장 외 2명, 당사에서 정서진 사장, 배현주 전무, 이기동 상무, 류우성 상무가 참석하여 배터리 용접공정 자동화, 인공지능 기반 자율 제조에 대한 공동 연구 외 4건 등 국가과제 기획 및 수행 등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논의를 통한 DGIST와 (주)화신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력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 04 경상북도 자동차부품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경상북도 자동차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과 연대를 위한 협력을 위해 도내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경주시·영천시·경산시는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벨트로서 매출액과 고용비중이 80% 수준으로 1차사(원청사)-2,3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이 필요하여 경상북도(경주시, 영천시, 경산시)는 2025년 4월 자동차부품 1차사, 협력사, 고용노동부, 연구기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상생협의체'는 우수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 내 공유하고 확산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경상북도'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적극 추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고용노동부'는 1차사와 협력사의 참여 및 이행 수준에 따라 경상북도 공모사업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협약을 2025. 9. 24일 실시하였다. [협약서 : 고용노동부장관, 경북지사, 경주시장, 영천시장, 경산시장, (주)화신, 아진산업(주), 에코플라스틱(주), (주)아진, (주)기승, 옥일산업(주)]



## 05 3분기 다공장 교류회 개최

10월 27일 화신의 신공장인 하이테크파크공장에서 다공장 교류회를 실시 하였다. 국내 화신 4개공장(언하, 봉동, 예산, 하이테크파크)과 화신정공 총 5개공장 대상으로 대표이사 정서진사장 주관으로 각 공장장, 팀장, 반장 등이 참석하여 25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도출하고자 보고회를 개최 하였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서는 안전보건 개선 및 관리감독자 활동과 미국 조지아법인 양산 운영 관련 제반업무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정서진 사장은 미국의 시장상황 등 고려 원가 경쟁력 강화 및 비정형작업시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06 제12회 R&D Tech-conference

제12회 R&D Tech-Conference가 당사 기술연구소 우석홀 및 1층 전시실에서 10월 30일 8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행사 프로그램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내부세션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정민하본부장의 전동화시대의 자동차부품 공급망 국가전략 추진과제 기초강연과 당사 연구개발본부의 으뜸기업 국책과제 등 4개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특별세션으로 외부전문가 기술동향 발표로 자동차부품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역할과 미래 등 4개과제 발표 및 당사 정서진 사장의 총평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동향 및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 적용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 제시 및 임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7** 제14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11월 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제14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시상식이 KBS신관 공개홀에서 이루어졌다. 이 행사는 일상 속 나눔 실천자 및 실천단체를 발굴하여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고 실천사례를 홍보 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주)화신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표 수상을 하였다. 표창 대상자 추천은 영천시와 경북공동모금회에서 당사를 추천하여 표창을 수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08** LT2 PROTO 시작품 품평회

2025년 11월 12일, 당사는 LT2 시작품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LT2는 당사와 상용 현대자동차가 함께하는 첫 차종으로, 그동안 도면과 3D 데이터로만 확인해 오던 제품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품평회에는 연구개발본부장 배현주전무, 문기준상무를 비롯한 각 부문 담당자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제품을 면밀히 살펴보며 성형성, 용접성, 조립성 등 주요 기술 요소를 집중 검토하였다. 또한 양산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며 향후 개발 방향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9** 한국폴리텍대학 대학생 하이테크파크공장 견학

11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재학생 46명이 당사 하이테크파크공장을 방문하여 견학을 진행하였다. 류우성 상무의 환영인사 및 주의사항 설명 후 회사 영상을 시청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 후 AX-EV라인 공정 투어를 진행하였다. 폴리텍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당사에 영천 소재 로봇캠퍼스 1회~3회 졸업생 수십명이 당사 각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



**10** ㈜화신, ㈜화신정공 나눔캠페인 성금 2억원 전달

영천시는 12월 1일 시청 만남의 광장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영천시 후원으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상징 조형물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여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영천'을 슬로건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6억원 모금을 목표로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첫 기부로 ㈜화신 1억5천만원, ㈜화신정공 5천만원을 기부하였으며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모금액은 영천형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11** 2025년 소방합동훈련

12월 2일 당사 안하공장에서 영천소방서와 2025년 소방합동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및 자연재해 발생시 사내 임직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방법을 직접 경험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실시 되었으며 안하공장 1~11지구대 전원(200여명)이 참석하여 지구대별 자체훈련 및 영천 동부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대피유도, 소화활동, 소방서 화재 진압훈련이 실시되었으며, 훈련종료 후 소방서 / 자체 강평과 소방서 심폐소생실 교육 및 실습이 이루어졌다. 이번 합동훈련을 통하여 실제 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HWASHIN NEWS \_ 화신 예산공장뉴스

**01**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주)화신 예산공장은 12월 11일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하였다. 예산군이 진행하는 나눔캠페인은 연말 연시를 맞아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돕기 위해 예산군에서는 12월 초부터 1월까지 캠페인 진행을 한다. 이준호 공장장은 화신 예산공장을 대표하여 예산군청을 방문, 2000만원을 기탁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정공 뉴스

**01** 화신정공 제 34주년 창립기념식

화신정공 제34주년 창립기념식이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지하 대강당에서 대표이사 정서진 사장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장기 근속자, 우수 사원 포상 대상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각종 시상과 축하가 진행되었다.



**02** 고용보험 동탑산업훈장 수상

9월 8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주)화신정공 공장장 강성만 상무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은 강성만 상무는 30년 이상 재직하며 인사·노무 분야에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주도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HWASHIN NEWS \_ 인도법인 뉴스

**01** 경영진 인도 푸네법인 신공장 투어

(주)화신 대표이사 정서진 사장은 11월 6일 인도 푸네법인에 방문하여 신공장 투어 및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푸네 신공장 투어, 현자자동차 인도법인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HWASHIN NEWS \_ 미국법인 뉴스

**01** 경영진 미국법인 운영관리 및 조지아 신공장 양산 준비 점검

(주)화신 장의호 부사장 및 생기혁신실장 채정환 상무는 11/12~18 미국 알라바마/조지아법인에 방문하여 운영관리 점검 및 조지아 신공장 양산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다.



HWASHIN NEWS \_ 북경법인 뉴스

**01** 북경법인 창립기념행사

북경법인은 11월 5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특식을 제공하였다.



**02** 북경법인 하반기 소방훈련

북경법인은 9월 25일 동절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화재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고, 훈련 후 소화기 사용요령 등 교육이 진행되었다.



HWASHIN NEWS \_ 베트남법인 뉴스

**01** 베트남법인 하반기 정기 소방훈련

베트남법인에서는 소방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 의식 교육을 위해 10월 24일 화재 시 대피 시연,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 요령 교육 등 팀별 훈련을 통한 정기 소방훈련을 진행하였다.



# 독감 유행 중! 뭘부터 챙겨야 할까?



글, 사진 재경팀 정현아 주임

일교차가 커지는 요즘, 출퇴근길에도 겨울이 가까워진 느낌이 물씬 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을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 또한 평소보다 더 많은 환자들로 붐비고 있고,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예년보다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 전파 속도 역시 빠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이후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실내 활동이 늘었고, 일상 속 접촉 또한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환경이 더 쉽게 조성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독감 감염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개인 건강 관리가 예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괜찮겠지”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위험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건강과 면역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감기와 독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감기와 독감은 대부분 처음 증상만 보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둘 다 기침, 콧물, 목 통증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질환은 감염 원인부터 회복 속도, 합병증 발생 가능성, 감염력까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감기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보통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 고열·전신 통증·피로감이 심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폐렴 등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등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위협적입니다. 한 명만 감염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으며, 집단 내 결근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업무 생산성과 조직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두 질환의 특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감기	구분	독감
주로 사계절 발생	시기	주로 가을, 겨울 발생
리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이 코나 목의 상피세포를 감염시켜 발생	원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폐를 감염시켜 발생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인후통, 객담,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이 생기나 대부분 1~2주 이내에 자연 치유	증상	갑자기 생기는 두통,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증상, 호흡기 증상
드물게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합병증	경련, 혼수상태, 급성기관지염, 천식, 폐렴

[출처] [https://blog.naver.com/kahp\\_blog/222915557237?photoView=3](https://blog.naver.com/kahp_blog/222915557237?photoView=3)

## 독감, 의심증상? - 체크 포인트

독감은 발병 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독감을 의심해보고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주요 증상 체크리스트

- ① 갑작스럽게 38℃ 이상의 고열이 난다.
- ② 누워 있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 ③ 몸살과 근육통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목·코 증상보다 몸 전체가 아픈 느낌이 더 심하다.
- ⑤ 식욕이 떨어지고 일상 활동이 어렵다.

이 증상들은 평소 감기에서 보이기 어려운 패턴으로, 신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키고 활동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침도 별로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픈 느낌'이라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nanoori09/223786077824?photoView=1>

## 독감, 이렇게 예방하세요!

독감 예방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불규칙한 수면, 긴장과 스트레스, 잦은 외부 접촉으로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❶ 독감 예방접종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항체 형성에 약 2주 필요 → 가능한 빨리 접종할수록 유리  
접종 후 가벼운 근육통, 미열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

### ❷ 위생 관리 철저히

손을 자주 씻고, 외부 활동 후 눈·코·입을 만지는 행동은 피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정, 손 소독제 병행

뜨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기침도 별로 없는데 몸이 너무 아픈 느낌'이라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면역력 강화**

수면 7~8시간 유지 (수면 부족은 면역력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스트레스 줄이기 → 가벼운 산책·취미 활동도 도움  
비타민·단백질·수분 균형 식단 유지

**④ 마스크 생활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착용이 가장 좋은 "방패"  
기침 시 옷소매 가리기 → 내 주변을 보호하는 배려

**⑤ 정기적인 환기**

하루 2~3회, 10분 이상 환기 → 밀폐 공간 바이러스 농도 감소

# 독감, 이렇게 대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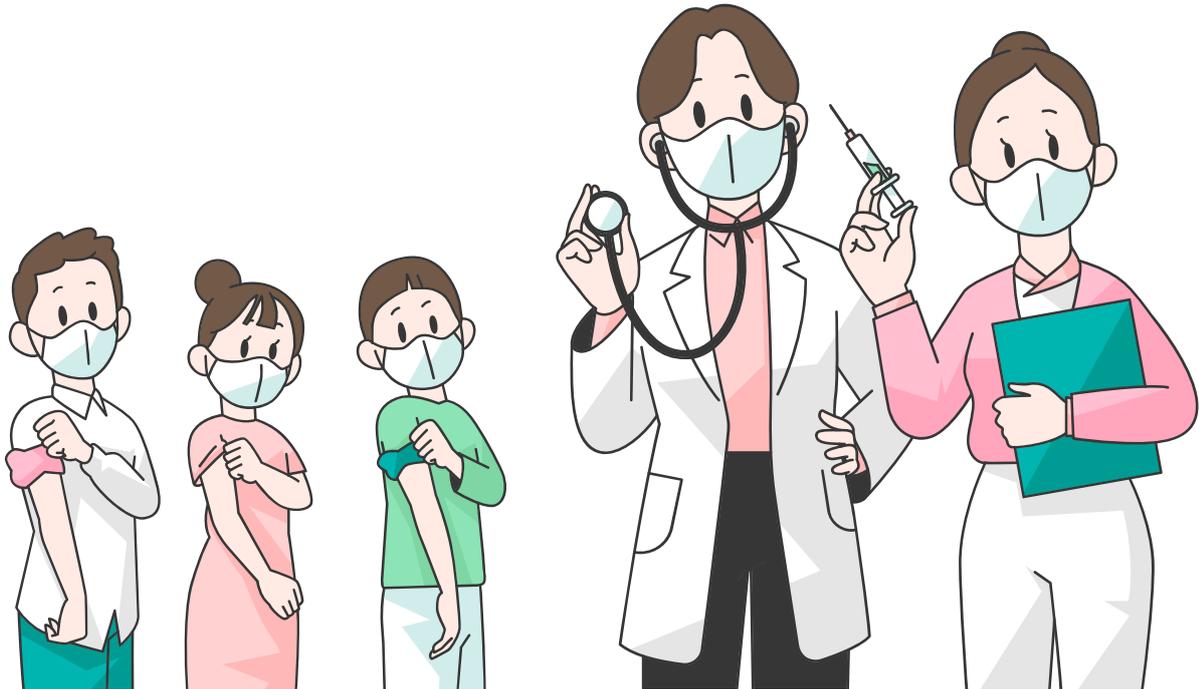
독감 예방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불규칙한 수면, 긴장과 스트레스, 잦은 외부 접촉으로 면역력이 쉽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① 독감은 초기 대응이 회복 속도와 합병증 위험을 결정합니다.  
- 증상 시작 48시간 이내 병원 진료 필수!
- ② 항바이러스제를 제때 처방받으면 회복 기간 단축, 합병증 예방  
- 약물은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용
- ③ 해열제·진통제는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몸이 힘들다고 과도한 약 사용 → 오히려 역효과  
- 충분한 휴식 + 수분섭취  
물, 이온음료, 따뜻한 차 등 수시로 마시기 / 실내 습도 유지 (40~60%) → 바이러스 증식 억제  
-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 증상 악화 시 무리한 출근 지양 /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체 배려

# 건강한 겨울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독감은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주변 사람들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공동체 건강 과제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동료의 건강, 가정의 안전, 업무 효율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의심 증상에는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번 겨울을 훨씬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따뜻한 생활 관리와 배려, 그리고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올해 겨울을 튼튼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 버디를 꿈꾸는 직장인의 골프 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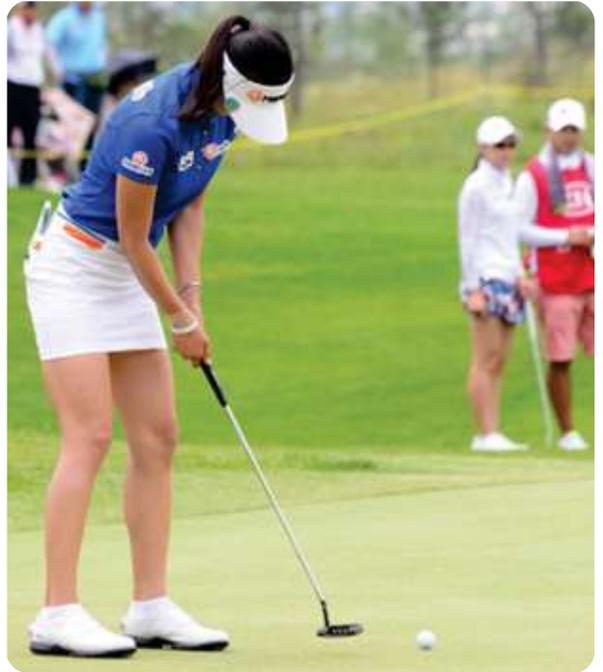
글, 사진 설비관리2팀 권민재 주임

## 골프는 어떤 종목인가요?

골프(Golf)는 넓은 야외 코스에서 클럽으로 공을 쳐, 정해진 홀에 가능한 적은 타수로 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선수는 티잉 구역에서 첫 샷을 시작해 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 해저드 등 다양한 지형을 지나가며, 최종적으로 그린 위의 홀에 공을 넣어 한 홀을 마칩니다.

골프는 **정확한 거리 감각, 스윙 기술, 코스 공략 능력**이 요구되며, 바람·지형·잔디 상태 등 자연환경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선수는 클럽 선택과 스핀을 활용해 공의 탄도와 구질을 컨트롤하며, 전략적 플레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출처 <https://news.tf.co.kr/print/1541537>

## 골프의 역사

골프는 15세기경 스코틀랜드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에는 나무 막대기로 돌을 쳐 토끼굴과 같은 구멍이에 넣는 간단한 형태의 놀이나 사냥형 스포츠가 현대 골프의 시초라고 전해집니다. 이후 18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St. Andrews)에서 골프 규칙과 코스 형태가 체계적으로 정립되며 현대적 스포츠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골프 클럽과 공의 제작 기술이 향상되었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1860년에는 최초의 공식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The Open Championship)'이 개최되었고, 1916년에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설립되며 세계적인 프로 대회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골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다시 채택되었으며, 이후 장비 규정 개선과 코스 관리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x-iflytoyou/221801725187>]  
▼ 출처 [<https://blog.naver.com/daikegud/222526509967>]

## 골프의 경기 방법 및 규칙



골프는 개인전과 단체전 형태로 진행되며, 경기 방식은 크게 **스트로크 플레이**, **매치 플레이**, 그리고 단체전에서의 **포볼·포섬 경기 방식**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과 대부분의 국제 대회에서는 스트로크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며, 선수는 정해진 18홀을 모두 돌면서 총 타수로 승부를 가립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18홀 또는 72홀(4라운드) 전체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승리합니다. 각 홀은 정해진 파(par)보다 몇 타를 적게 또는 많이 쳤는지에 따라 스코어가 기록되며, 모든 홀의 타수를 더해 최종 성적을 산정합니다.

만약 규정 라운드 종료 후 동타일 경우, 대회 규정에 따라 **\*\*연장전(Playoff)\*\***을 진행하거나 지정된 홀에서 서든데스를 통해 승자를 가리기도 합니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홀을 이기면 1점을 획득하며, 더 많은 홀을 이긴 선수가 승리합니다. 경기 중 특정 홀을 마다 결과가 계산되며, 남은 홀 수보다 앞서가면 경기가 즉시 종료됩니다.

또한 경기 중에는 벙커·워터해저드 등 특정 구역에 빠졌을 때 **\*\*벌타(Penalty Stroke)\*\***가 적용되며, 공이 플레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을 경우 언플레이어블 선언 후 규정에 따라 드롭을 실시합니다.

골프에서는 각 홀에서 **티샷 → 세컨샷 → 어프로치 → 퍼팅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샷은 공이 정지한 상태에서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페어웨이·러프·벙커·그린 등 지형에 따라 클럽 선택과 샷의 방식이 달라지며, 자연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골프에서 스코어는 각 홀에서 공을 쳐 **정해진 홀(컵)에 넣기까지 사용한 타수**로 기록됩니다. 한 홀을 적은 타수로 마칠수록 유리하며, 모든 홀의 타수를 합산해 최종 성적을 결정합니다.

스코어가 기록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티샷 이후 규정대로 플레이하여 공을 홀에 넣었을 때
- ② 공이 정지한 위치에서 클럽으로 정상적인 스트로크를 수행했을 때
- ③ 페널티 상황(워터해저드·OB 등)에서 규정에 따라 벌타가 부여되었을 때
- ④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드롭 후 플레이했을 때
- ⑤ 벙커·러프·페어웨이 등 어떤 지형에서도 공을 움직이지 않고 스트로크했을 때
- ⑥ 규정된 순서(원거리 플레이 우선)를 따르지 않아도 심판 또는 마커 승인 하에 타수를 인정받았을 때
- ⑦ 플레이오프나 연장전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홀아웃(홀 완료)을 했을 때

## 골프의 그립법

골프의 그립(클럽을 잡는 방법)은 스윙의 안정성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프에서는 크게 **오버래핑 그립**, **인터로킹 그립**, **베이스볼 그립** 등 세 가지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 오버래핑 그립 (Vardon Grip)

오버래핑 그립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적인 그립 방법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검지손가락 위에 겹쳐 잡는 방식입니다. 손이 비교적 크거나 힘 조절이 필요한 골퍼에게 적합하며, 양손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어 스윙 시 안정적인 회전력을 만들어 냅니다.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립이기도 합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



### 인터로킹 그립 (Interlocking Grip)

인터로킹 그립은 왼손 검지손가락과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서로 끼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손이 작은 골퍼나 그립의 일체감을 높이고 싶은 골퍼에게 적합하며, 양손이 강하게 결속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 클럽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잭 니클라우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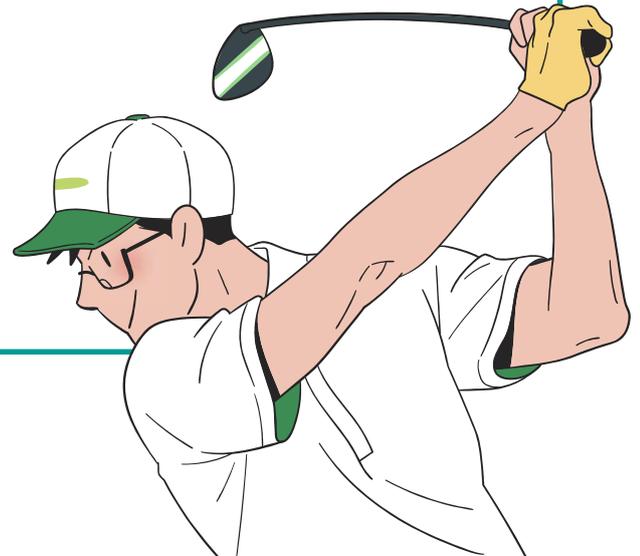
◀ 출처 [[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



### 베이스볼 그립 (Baseball / Ten-Finger Grip)

베이스볼 그립은 양손을 따로 떼지 않고 야구 배트처럼 10개의 손가락 모두로 클럽을 잡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나 손에 힘이 약한 사람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며, 손목 사용이 쉬워 공을 멀리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손목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숙련된 조절이 필요합니다.

◀ 출처 [[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https://blog.naver.com/theswing_yeongtong/223907008979)]



## 골프의 경기 유형



● **스트로크 플레이** : 현대 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기 방식입니다. 각 선수는 18홀 또는 72홀(4라운드)을 플레이하며, **모든 홀의 총 타수**로 승부를 가립니다. 티샷부터 퍼팅까지 한 홀을 마칠 때까지 사용한 모든 타수가 기록되며,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우승합니다. 스트로크 플레이는 코스 전체를 고르게 공략해야 하며, 한 홀의 실수가 전체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매치 플레이** : 각 홀마다 승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로크 플레이처럼 총 타수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홀에서 적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그 홀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3홀 앞서게 되면, 남은 홀의 수가 이를 따라잡을 수 없어도 경기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매치 플레이는 공격적 운영, 심리전, 전략적인 홀 선택이 핵심입니다.

● **포볼 경기** : 두 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각의 공으로 플레이한 뒤, 홀마다 **두 선수 중 더 좋은 스코어**를 팀의 스코어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팀 내 한 명이 실수해도 다른 한 명이 좋은 스코어를 기록하면 만회할 수 있어, 리스크 분산 전략이 중요합니다. 라이더컵, 프레지던트스컵 등 국제 단체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 **포섬 경기** :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한 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방식**입니다. 한 선수가 티샷을 하면 다음 샷은 파트너가 치는 구조이며, 홀마다 티샷 순서를 달리하여 전략적으로 코스를 공략합니다. 포섬은 두 선수의 실력 조화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샷 운영 능력을 요구합니다.

## 골프 스코어 용어 정리

- **홀인원 (Hole-in-One)**  
티샷 한 번으로 바로 홀인하는 최고의 기록.
- **알바트로스 (Albatross / Double Eagle)**  
파보다 3타 적은 매우 희귀한 스코어.
- **이글 (Eagle)** 파보다 2타 적은 스코어.
- **버디 (Birdie)** 파보다 1타 적은 스코어.
- **파 (Par)** 기준 타수와 동일.
- **보기 (Bogey)** 기준 타수보다 1타 많은 스코어.
- **더블 보기 (Double Bogey)**  
기준 타수보다 2타 많은 스코어.
- **트리플 보기 (Triple Bogey)**  
기준 타수보다 3타 많은 스코어.
- **쿼드러플 보기 이상 (Quadruple Bogey +)**  
기준 타수보다 4타 이상 많은 경우

## 골프채 종류



### ● 드라이버(Driver)

티샷에서 사용하는 가장 길고 헤드가 큰 클럽입니다. 공을 멀리 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주로 Par 4·Par 5 홀의 첫 샷에서 사용됩니다.

### ● 어웨이 우드(Fairway Wood)

드라이버보다 헤드가 작고 샤프트가 짧아 보다 안정적인 스윙이 가능합니다. 페어웨이에서 긴 거리를 공략할 때 사용되며, 3번·5번 우드가 대표적입니다.

### ● 유틸리티(Utility / Rescue)

우드와 아이언의 장점을 결합한 클럽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안정적인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언보다 쉽게 띄울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3H, 4H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 ● 아이언(Iron)

4번부터 9번까지 번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번호가 높을수록 짧은 거리와 높은 탄도를 냅니다. 페어웨이·러프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정확한 방향성과 컨트롤을 요구하는 샷에 적합합니다.

### ● 웨지(Wedge)

짧은 거리의 정교한 어프로치나 벙커샷에서 사용됩니다. 로프트에 따라 피칭웨지(PW), 갭웨지(GW), 샌드웨지(SW), 로브웨지(LW) 등으로 구분되며, 공을 높이 띄우거나 스핀을 강하게 거는 데 유용합니다.

### ● 퍼터(Putter)

그린 위에서 공을 굴려 홀에 넣는 데 사용하는 클럽입니다. 말렛형과 블레이드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거리감과 방향성 조절이 핵심입니다. 한 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입니다.

이렇게 골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저도 사실 얼마 전부터 스크린 골프를 시작했을 뿐이지만 점점 흥미가 생겨서 틈틈이 지인들과 시간을 맞춰 즐기고 있습니다. 볼이 잘 맞을 때의 손맛도 재밌고, 스코어가 조금씩 좋아질 때마다 성취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직은 스크린에서만 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제 필드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재미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스크린이든 필드든 한 번 직접 체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매력 있고 깊이 있는 스포츠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 건강한 화신 문화의 중심, 함께 달리는 저스트런!

전 세계적으로 러닝 열풍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춰 화신 내에도 열심히 함께 달리는 화신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25년 5월 결성된 사내 러닝 동호회 '저스트런' 이 그 주인공입니다.

러닝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에 힘입어 이미 화신 내 최대 동호회로서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저스트런!

러닝이 이제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사계절 내내 달리기엔 진심인 사람들.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모두가 함께 달리는 저스트런의 매력에 한번 빠져봅시다~!

글, 사진 마케팅2팀 권태윤 책임



## 저스트런의 시작

‘저스트런’의 기본 컨셉은 ‘건강달리기’입니다.

달리기에 대한 기록을 중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체력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여 함께 달릴 수 있는 이른바 ‘FUNRUN’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말을 동호회의 공식 표어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우습지만 결코 원래 운동을 잘하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시작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작은 단독방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허리가 안좋았거나, 혈압이 높거나,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쪼거나 해서 운동을 무조건 해야만 했던 마케팅 부문 사람들 5명이 모여서 단독방을 만들고 달리기업을 지정하여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또는 같이 댄 후 특방에 기록과 사진을 올리고 서로 응원, 격려 또는 경쟁심을 부추겨가며 운동한 척하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점심시간 우연히 러닝화를 신고 있는 설계부문 사람들을 마주쳤고, 얘기하다보니 서로 소모임이 있으니 이왕이면 같이 합친 후 좀 더 모집해서 공식적으로 해보자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화신 사내 공식 러닝 동호회 ‘저스트런’입니다.

공식 동호회가 결성되었으니 이제 모두가 하는 척이 아닌 ‘진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20명 남짓 되는 회원수로 동호회 등록을 하였으나, 러닝이 대세인 시대인 만큼 사내에 현재 뛰는 사람, 또는 뛴 것 같은 사람, 또는 앞으로 뛴 마음을 가진 잠재력이 있는 사람까지 동호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합류하다보니, 해외법인까지 어느덧 회원수 70명이 넘는 화신 내 최대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저스트런은 공식 운영진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무늬만 있는 동호회가 되지 않기 위해 동호회 회칙을 정한 후 여러 정보 및 이벤트 기획 등을 운영진에서 회의를 거친 후 단체 특방에 공지하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 저스트런 운영진

이름	얼굴	소속팀	직책	소개
최귀득		글로벌마케팅팀	회장	▷ 진심으로 건강을 위해 달리는 저스트런 동호회의 회장님 ▷ 꾸준히 새로운 기록 갱신 중
최성현		제품설계1팀	총무	▷ 동호회의 시작. 돈을 담당하는 총무지만 실상은 괴수 러너 ▷ 가장 많이 뛰고 자주 뛰고 빨리 뛰는 천상 러너
이영대		글로벌기획팀	마스터	▷ 미라톤 풀코스 마스터로서 동호회의 정신적 지주 ▷ 가끔씩 넘사벽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회원들의 의지를 고취시킴
송시환		조지아법인	해외법인 지부장	▷ 글로벌한 저스트런의 해외법인 운영을 맡고 있음 ▷ 해외에서도 러닝 활동할 수 있는 방안 구상 중
권태운		에코마케팅팀	운영자	▷ 오기로 의지로 열정으로 억지로 뛰는 초보 러너 ▷ 회원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열정으로 뛰는 중 ▷ 동호회 전반적인 일정 관리 및 회원 영입(?)등을 담당하는 운영자
장필중		제품설계1팀	운영자	▷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띄엄띄엄 뛰고 있지만 실은 천상 러너 ▷ 동호회를 위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록 관리등을 담당하는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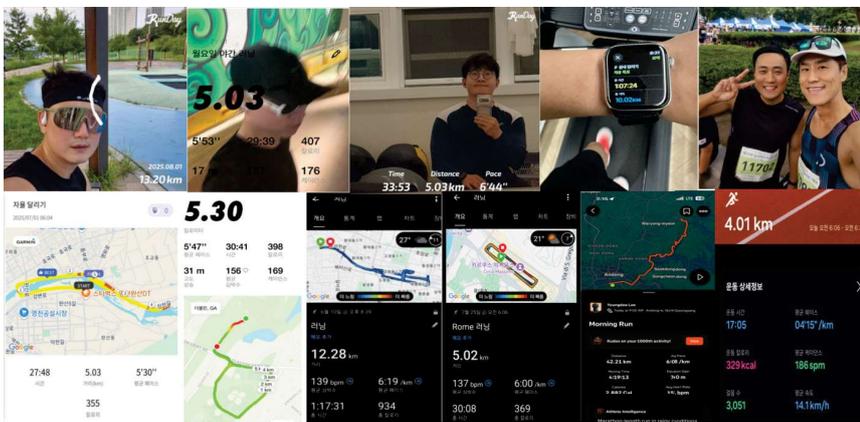
## 저스트런의 활동

저스트런은 러닝 크루이지만 특이하게도 온라인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단체 러닝보다는 개별 러닝 후 온라인 인증을 통해 활동하며, 그로 인해 근무처가 다른 타지역의 회원들도 꾸준히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같은 근무지에 있는 타동호회 대비 저스트런이 기술연구소, 언하공장, 봉동공장, 하이테크파크공장, 해외법인까지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스트런은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여 각자의 기록을 인증하고, 러닝에 대한 다양한 팁공유, 마라톤 정보 공지, 러닝 장비 구매 링크를 통해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회원간 동일한 러닝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저스트런 크루의 피드를 통해 서로의 운동을 체크하고 응원해주며, 다양한 이벤트로 재미까지 더하여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저스트런 공식 달리기 앱 : '런데이')



〈저스트런의 다양한 인증 사진〉

## 저스트런 동호회 런칭 이벤트!

대상 기간	구분	상금	내용
딱 한달간! (6월15일~7월 15일)	내다대상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간 동안 <b>첫번째로</b> 가장 많이 인증해주는 분!!! (※ 인증은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몇차례 인증하는 것은 1회 인증한 것으로 취급)</li> <li>▷ 운동 후 매번 기록 인증 필수, 얼굴 인증 1회 필수 (일상 사진 아무거나)</li> <li>▷ 인증 일수가 동일 할 경우, 얼굴 인증 횟수가 많은 회원 우선으로 선정 ↳ 그것도 동일할 시 가위바위보로 결정</li> </ul>
	니도뵈나상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간 동안 <b>두번째로</b> 많이 인증해주는 분!!! (※ 인증은 일수 기준으로, 하루에 몇차례 인증하는 것은 1회 인증한 것으로 취급)</li> <li>▷ 운동 후 매번 기록 인증 필수, 얼굴 인증 1회 필수 (일상 사진 아무거나)</li> <li>▷ 인증 일수가 동일 할 경우, 얼굴 인증 횟수가 많은 회원 우선으로 선정 ↳ 그것도 동일할 시 가위바위보로 결정</li> </ul>
	머고결결상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기간 동안 <b>단 1회만 인증하시면 행운 추첨 대상!!!</b></li> <li>▷ 뒤편 걷든 앉았든 누웠든 운동했다고 딱 한번만 기록 인증하면 누구나 추첨 대상! (※ 공정한 추첨을 위해 저스트런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름 적힌 행운권 뽑기 단 1회로 선정, 참관 희망 회원 있을시 일정 공유)</li> </ul>

주1) 살신성인의 의미로, 동호회 운영진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2) 동일한 사람에게 상품 중복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1인당 상품 하나만 수령 가능)

주3) 기록 인증은 저스트런 공식앱인 "런데이" 기록 캡처로 인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죠?  
이벤트 참여하는만큼 살빠져요~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

## 저스트런의 족적

저스트런은 결성 이래 다양한 시즌별 오프라인 러닝 시행, 지역 마라톤 대회 참가 등 활발한 족적을 남기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신이 위치한 지역인 영천지역에서 열린 지난 '영천담 마라톤'(25년 11월 8일 개최)에는 화신인 30명 정도가 단체로 출전하여 모두 부상없이 괄찬은 기록으로 완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채널'등의 지역 신문에 '화신'의 사내 동호회로서 저스트런 소개 기사를 실는 등 화신이란 우수한 기업을 동호회와 함께 지역 사회에 동시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영천담 마라톤 단체 참가>



<영천담 마라톤 최기문 시장님과 함께>



<저스트런 소개글 지역신문 게재>

## 저스트런의 어원과 포부

동호회명이 왜? 저스트런인가하며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스트런이란 동호회명에는 아래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신이 주저 앉아 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업무든 운동이든 취미든 뭐든 말이죠. 왜 달려나가요? 그냥요(JUST)!!! 생각하고 뛰면 늦습니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으로! 저스트런!



둘째, 달리기란 빨리 달리거나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발동작이나 보폭 등 사람에 따라 정해진 바가 없이 제각기 구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회원 누구나가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자기한테 딱 맞는(JUST) 달리기 방법을 찾아서 건강하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남을 의식하지말고 자기자신한테 알맞게! 저스트런!

앞으로도 저스트런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록을 욕심내지 않고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꾸준히 달리는 화신 건강 문화의 선두주자가 되어, 화신인이라면 누구나 합류할 수 있는 부담 없고 친근한 동호회로 점차 성장해 갈 것입니다.

화신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JUST RUN!**



### 데일리 저스트러너 글로벌마케팅팀 최귀득 책임 (동호회 회장)

#### 겨울에 시작된 러닝, 그리고 1년의 변화

2024년 11월 말, 생일 선물로 받은 가민 워치를 계기로 러닝을 시작했다.  
첫 기록은 5km에 44분. 빠른 걸음에 가까운 속도로 겨우 달린 시간이었다.  
차가운 바람을 헤치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던 겨울.  
‘앞으로 이것 꾸준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따라다녔다.

그때 누군가의 조언이 마음을 움직였다.  
“마라톤 대회 신청하시면 꾸준히 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호기심 반, 도전심 반으로 마라톤 대회를 검색했고,  
생애 처음으로 3월 대회에 접수했다.  
이후의 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대회를 신청한 순간부터 ‘10km를 1시간 안에 완주하자’는 목표가 생겼고,  
러닝을 할 때마다 스스로의 페이스를 확인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기록이 좋아질수록 더 뛰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어느새 저녁 러닝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대회에 참가하는 재미로 러닝을 이어가고 있다.  
1년 가까이 달려온 지금, 퇴근 후 운동을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이 신기하고도 대견하다.  
50대에 시작한 러닝이지만,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가장 좋은 때라는 확신이 든다.

**“꾸준히 달려온 지난 1년, 꽤 잘해왔어.”**





# 서로 다른 자리, 같은 마음

글, 사진 자율제조기술팀 김성찬 주임

## 회사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다 보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일하는 방식과 성향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사소한 순간부터 라인 개발 프로젝트처럼 진지한 고민까지  
서로의 생각을 기꺼이 나누며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팀원’이라는 말보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EV스트럭처팀 회식〉



## 다르게 일하고, 함께 성장한다.

우리 팀은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만 그 목표에 닿는 길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꼼꼼함을 무기로 삼는 사람, 빠르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사람 사이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사람

이 서로 다른 방식이 충돌하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를 팀의 기본값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게 EV스트럭처팀만의 힘입니다.



### 현장은 우리의 또 다른 팀

사무실 팀원들뿐만 아니라 현장 팀원들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입니다. 사무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해주는, EV스트럭처팀의 든든한 히어로들입니다. 샘플이 필요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주고, 리워크가 필요하면 주저 없이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라인과 품질 개선의 가장 앞에서 땀 흘리는 현장 팀원들은 사무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1선의 동료들입니다.



<안전 활동도 꼼꼼히!>

### 가끔은 부딪히고, 그럼에도 함께 간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미숙함으로 인해 혼이 날 때도 있고, 생각이 달라 단단히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일로 만났지만, 사람으로 남자”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일은 일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지키고 싶은 약속입니다.



<슬선수범 조반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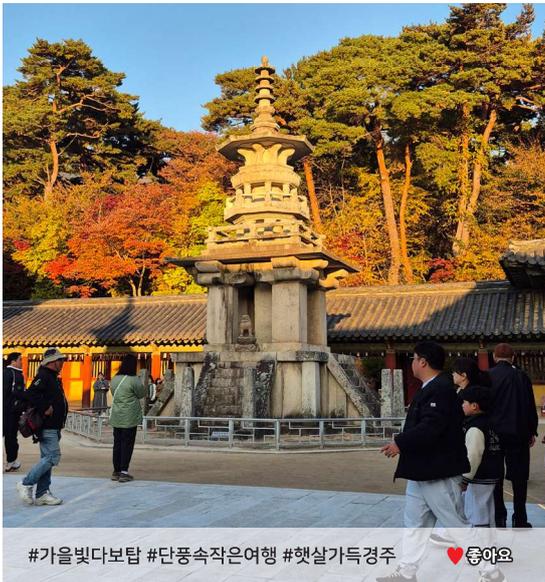
### 일은 다르게, 마음은 함께

EV스트럭처팀은 일을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사무실 테이블에서, 누군가는 용접기 앞에서, 누군가는 생산라인 사이에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모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하나의 팀을 완성합니다.

일은 다르게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 그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자 오피스 절친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삼겹살픽 #살찌는 소리 ❤ 좋아요



#삿포로 #겨울 ❤ 좋아요



#앞산 #정상뷰 #힘들다 ❤ 좋아요



#중산지 #슈퍼문 ❤ 좋아요



#여수 #밤바다 ❤ 좋아요



#여전히나는 #어쿠스티어 #기타포에버 ❤ 좋아요



#여의도 #한강뷰 #가지고싶어요 ❤ 좋아요



#월지에서한컷 #경주밤감성 #빛에잠긴가을밤 ❤ 좋아요



#주말아침 #꼬순내 ❤ 좋아요



#천년미소챌린지 ❤ 좋아요



#일본여행 #폰토초거리 ❤ 좋아요



#초보러너 #의지로끈기로 ❤ 좋아요



# 우리는 낚시를 해도 '그냥' 하지 않는다

글, 사진 생산1팀 김명원 책임

용접1반의 올해 야유회 주제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었다.  
회의를 거치며 여러 후보가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미묘한 관심을 갖고 있던 공통 주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낚시였다.  
해본 사람보다 안 해본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도전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우리의 ‘처음 해보는 선상낚시 야유회’가 시작되었다.

## 기획 단계 - 다양한 의견, 하나의 결론

초기 회의에서는 꽤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등산파, 볼링파, 족구파가 치열하게(?) 의견을 내는 와중에  
“낚시를…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라는 조용하지만 반복되는 의견이 생겼다.

모두가 잘하진 못해도, 모두가 비슷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팀워크 관점에서도 훌륭했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만선으로 복귀하자”라는 합리적인 목표(?)가 나왔고, 올해 야유회는 큰 포부와 함께 선상낚시로 결정되었다.



## 알고 보니 낚임장벽 낮은 선상낚시

낚시는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이 많았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준비물은 거의 없었다.



낚시대 : 대여 가능 / 미끼 : 제공 / 사용법 : 알려줌 / 잡힐지 여부 : 운

이 정도면 팀원들 전원이 평등한 출발선이다. 그 매력 때문에 선상낚시는 회의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못 잡으면 풍경이라도 있잖아.” 이 한마디가 모두를 안심시켰다.

## 출항 전, 박병권 반장님과 최이길 조장님의 ‘초스피드 낚시 강의’

본격적인 출항 전, 용접1반 자칭 낚시 전문가인 최이길 조장님과 선상낚시만 처음이신.. 박병권 반장님의 즉석 속성 강의를 진행했다.



“낚시대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던져야 합니다.” “입질 오면 이렇게 하세요.” “당황하면 고기는 떠납니다.”

짧았지만 핵심은 있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났을 때, 모두의 표정은 “원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자”에 가까웠다



## 배 위에서 펼쳐진 각자의 '야유회 모드'

배가 항구를 벗어나자, 각자의 '야유회 모드'가 발동됐다.

**풍경 감상파** : 낚싯대를 잡기 전부터 사진 50장

**라면파** : “아무리 봐도 오늘의 MVP는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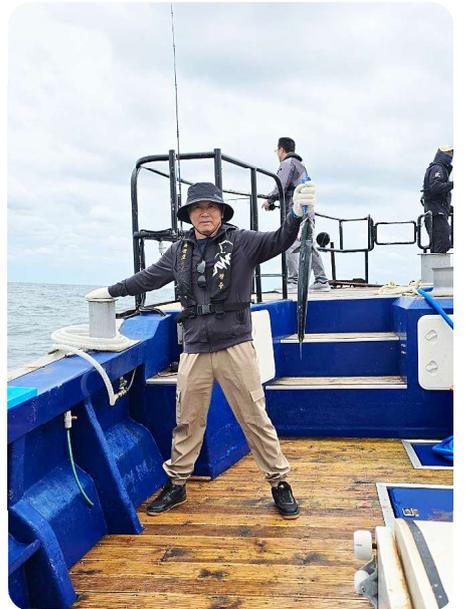
**멀미파** : 일어서면 안 되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중

**승부욕파** : 고기보단 자신과 싸우는 분위기

**관전파** : 다른 사람이 잡는 순간만 적극적으로 반응



고기가 잡히면 배 전체가 들썩었고, 놓치면 또 모두가 함께 탄식을 했다.  
낚시보다 '리액션'이 더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다.



## 바로 잡아 바로 먹는 생선회

낚시의 백미는 역시 ‘바로 먹기’다. 잡은 고기가 크든 작든, 종류가 어떻든 생선이 회로 변해 식탁(?)에 올라오면 분위기가 자동으로 좋아진다.

“이게 우리가 잡은 고기 맞죠?”, “방금 잡힌 게 이렇게 달라?”



맛 때문이 아니라, 직접 잡은 고기를 팀원들과 나눠 먹는 그 상황 자체가 즐거움이었다.

## 낚시가 남긴 진짜 효과

이번 야유회는 단순한 취미 체험이 아니라 팀 내 분위기와 관계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

### 1) 서로간의 못다한 이야기 나눔

현장에서 마주치지만 업무 이야기 외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대화를 배 위에서는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다. 배가 흔들려도 대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 2) 스트레스 해소

고기를 못 잡아도 바람은 잡을 수 있었고, 라면과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 3) ‘같이 처음 해본 경험’이라는 공통 추억 생성

모두가 초보였기 때문에 서로를 도울 일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해프닝들이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 4) 안전하게 마무리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치지 않았다’는 점. 멀미는 있었지만 부상은 없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야유회다

## 마무리 - 벌써 다음이 기대되는 이유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다.

“내년엔 뭐 해볼까요?”

“이제 산으로 갈 차례인가요?”

“아니면 고기 말고 다른 걸 잡아볼까요?”

올해 야유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남겼다.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 어떤 활동도 충분히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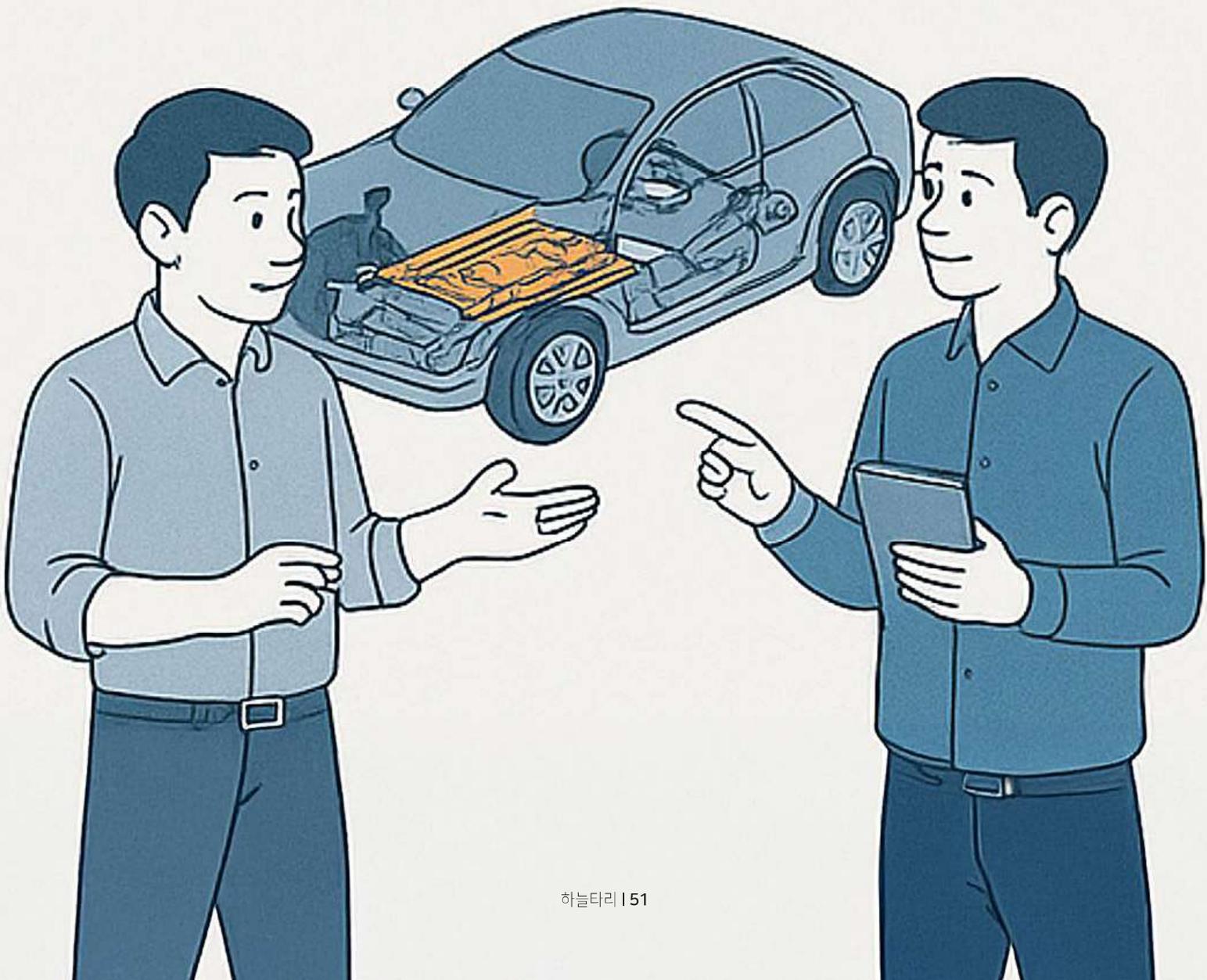


용접1반의 다음 야유회는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르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낚시도 그냥 하지 않고, 야유회도 그냥 하지 않는다.



# 선·후배가 함께하는 2026년 EV시장 전망 9문 9답

글, 사진   글로벌마케팅팀 이동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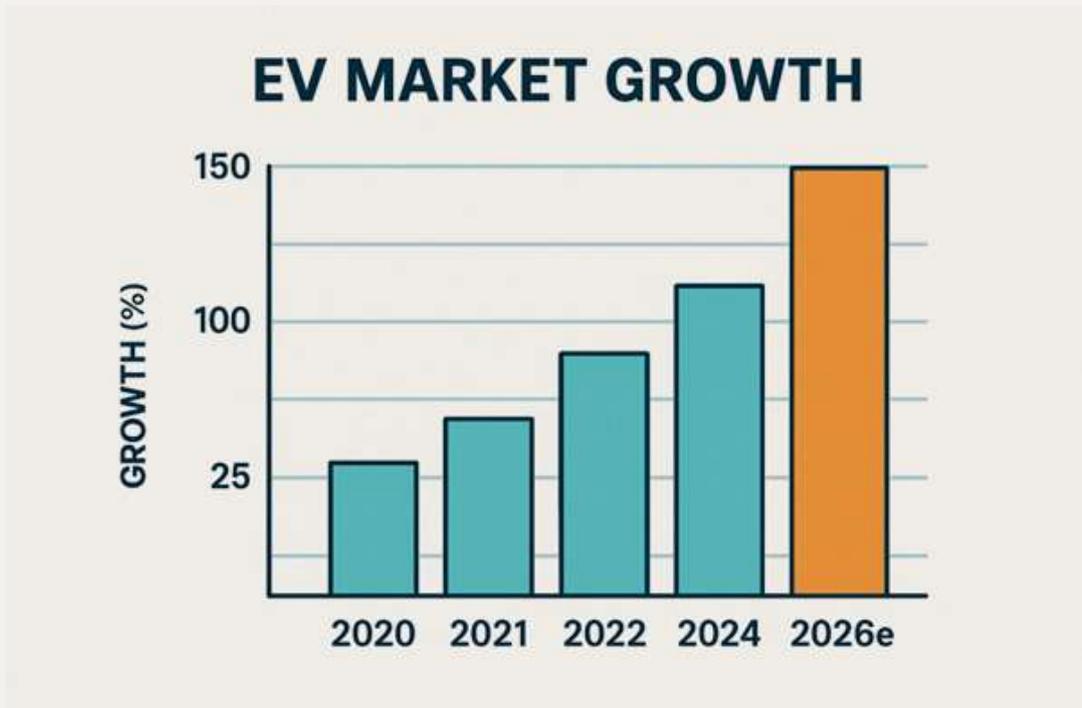
# Q1 EV 시장은 2026년에 얼마나 커질까요?

후배 : 선배님, 2026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배 : 2026년이면 글로벌 EV 판매량이 약 2,300만~2,500만 대 수준으로 전망돼. 전체 승용차 시장의 약 25%, 그러니까 1/4이 전동화 되는 셈이지.

후배 : 그럼 2020년 대비 거의 몇 배나 오른 거네요?

선배 : 맞아, 여러 이유로 성장은 둔화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고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



# Q2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어느 나라가 전기차를 제일 많이 타나요?

선배 : 단연 중국이야. 2026년엔 중국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NEV(EV+PHEV)가 될 거야.

**\*NEV**  
New Energy Vehicle의 약자, 내연기관대비 환경부하를 줄이는 차량을 묶어서 부르는 규정상 용어

**\*PHEV**  
외부 충전이 가능하고전기모터 + 엔진을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후배 : 유럽 시장은 어떤가요?

선배 : 유럽도 변화의 흐름이 빠르지. 환경규제가 강해서 2026년에 EV(플러그인 포함) 점유율이 30~35% 까지 예상돼.

후배 : 미국은 어때요? 유럽보다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을 것 같은데..

선배 : 정확해. 미국은 정책 영향이 크다 보니 2026년 BEV 점유율은 약 20% 안팎으로 전망돼.

**\* BEV(Battery Electric Vehicle)**

배터리에 저장한 전기만으로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100% 전기차

# Q3 기술적으로는 EV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까요?

선배 : 핵심 기술 트렌드는 4 가지야.

**1. LFP 확대**

\* Lithium Iron Phosphate(리튬 인산철 배터리)  
NCM배터리(니켈/코발트/망간으로 구성된 배터리) 대비 안전/저가/긴 수명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 밀도가 NCM대비 낮아 장거리 주행에 불리

- 중국 중심으로 저원가·안정성·수명에서 강점.
- 중 소형 승용차뿐 아니라 상용 EV에도 확대 적용.

**2. NCM 계열 고에너지밀도화**

- 고니켈·실리콘 음극 적용으로 장거리 모델에서 유리.

**3. 800V 고전압 아키텍처 확산**

- 현대 E-GMP처럼 고속 충전·효율 향상에 유리.
- 2026년엔 중상급 EV의 사실상 기본 사양이 될 가능성 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현대차그룹의 전용 EV 플랫폼. 내연기관 차를 개조한 EV가 아닌, 처음부터 전기차용으로 설계된 전용 플랫폼

**4. 전고체 배터리 도입 시작**

- 상용화 초기 단계로 2026년엔 시험적/소량 적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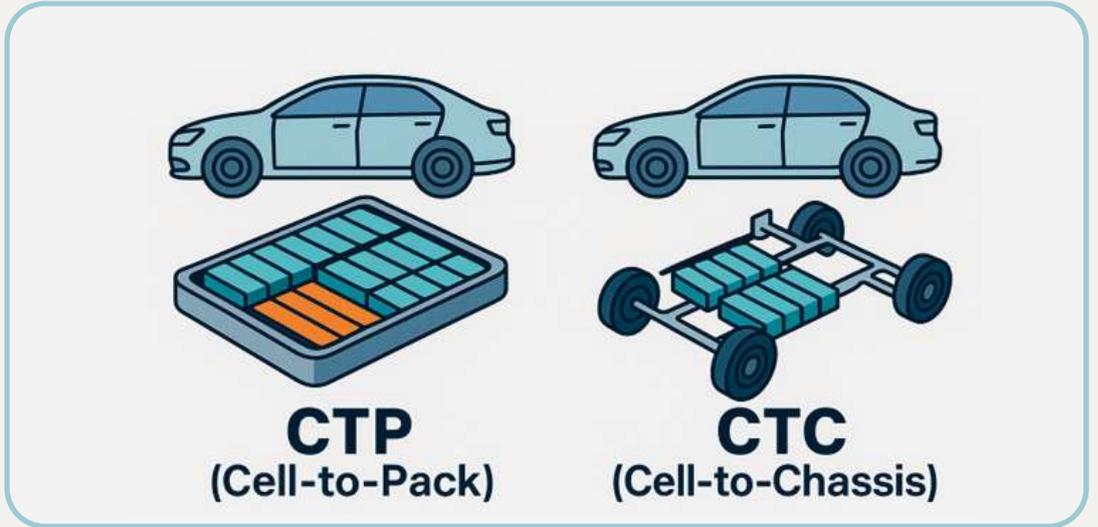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고, 전해질이 ‘고체(固體)’ 상태인 차세대 배터리를 말하는 것인데... 전기차에 적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안전하고 가볍고 수명도 길지만 대량양산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장벽을 해결하는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 Q4 배터리 외에도 전기차 구조적 변화가 있을까요?

선배 : 엄청 많지. 대표적으로...

- CTP(Cell-to-Pack) / CTC(Cell-to-Chassis) 구조 확산  
→ 모듈 제거로 원가 절감 + 패키징 개선



- 열관리 시스템 강화  
→ 히트펌프, 냉각판, 일체형 열교환기 수요 증가
- 경량화 요구 증가  
→ 상부는 알루미늄·복합재, 하부는 고강도강·주조 일체형 부품
- NVH·부식 대응 강화  
→ 언더커버, 하부보호(Stone Impingement), 방청·표면처리 중요도 증가

# Q5 완성차 업체들은 2026년에 어떤 전략을 쓸까요?

선배 .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

- 미국 / 유럽 전통 OEM
  - EV 생산 목표 일부 조정(속도 조절)
  - 플랫폼 통합 →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화
  - 소프트웨어/OTA/구독형 서비스로 수익 구조 전환

### \* OTA : (Over-The-Air)

네트워크(무선/Wi-Fi/4G/5G)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원격 업데이트하는 기술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iOS/Android 업데이트와 같은 개념을 자동차에 적용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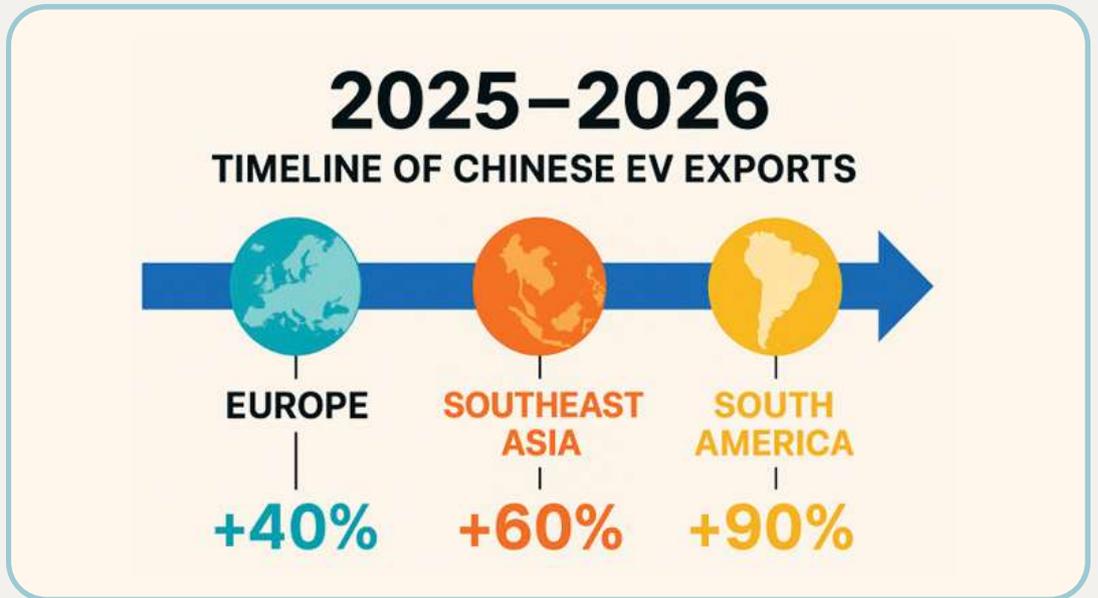
- 북미는 IRA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 확대 압력

**\* IRA :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에서 제정된 대형 법안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미국 내 제조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산업정책으로 자국 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공제 및 지원 포함

**● 중국 OEM**

- BYD, Geely 등은 가격 경쟁력 + 수직 통합으로 우위
- 중국 내수 성장 둔화 → 유럽·남미·동남아 진출 강화
- 해외 생산공장 설립(헝가리 등)의 속도가 빠름



**● 신생 EV 업체**

- 자금 압박 → 구조조정, 합병, 정리 단계로 진입
- 상위 기업 중심으로 재편 가속화

# Q6 IRA나 EU 규제 같은 지역별 정책 및 규제가 2026년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선배 : 엄청 크지

**● 미국 IRA**

- 배터리 소재·부품 원산지 규정 강화 / 한국·유럽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 영향

**● EU 배터리 여권 / 탄소발자국 규제**

- CO<sub>2</sub>, 배출량·재활용 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함

● 중국 NEV 크레딧 제도

- EV 생산·판매 비중을 강제적으로 높일 가능성

한국 2026 보조금 확대

- 내수 전기차 판매 회복 지원

후배 : 전기차는 기술보다 정책의 영향이 더 큰 것 같기도 하네요.

선배 : 맞아. EV 시장은 기술·정책·원가·공급망 네 요소가 동시에 움직여.

## Q7 그럼 2026년 EV 시장의 위험요인은 무엇일까요?

선배 : 대표적으로 4 가지야.

- 단가 압박 심화 / ● 중국발 가격 경쟁 / ● 정책 불확실성(IRA·관세·보조금)
- 충전 인프라의 지역별 불균형

후배 : 특히 중국 가격 경쟁이 심각하겠네요.

## Q8 그럼 2026년 EV 시장의 기회 요소는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겠죠?

선배 : 물론이지.

- 배터리 가격 하락 → EV 가격 경쟁력 증가 / ● 상용차·트럭 전동화 가속
- 유럽·북미 현지화 확대 → 신규 공급망 진입 기회
- 플랫폼 단순화 → 안정적인 부품 수요

## Q9 2026년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후배 : 마지막으로, 2026년 전기차 시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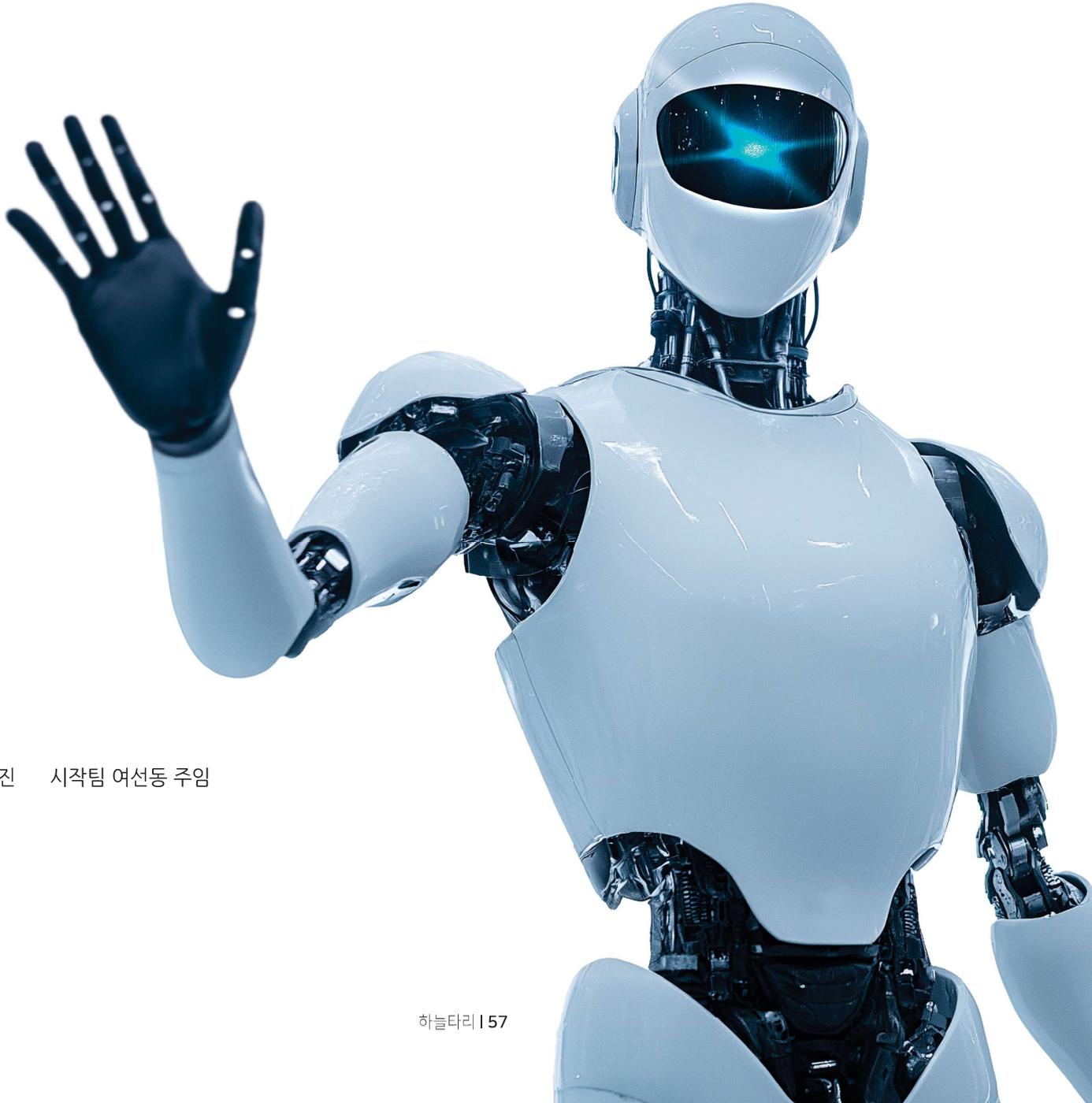
선배 : 성장은 예전보다 느려지지만, 전기차로 가는 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정도랄까 ㅋㅋㅋ

후배 : 와! 한 마디로 모든 내용이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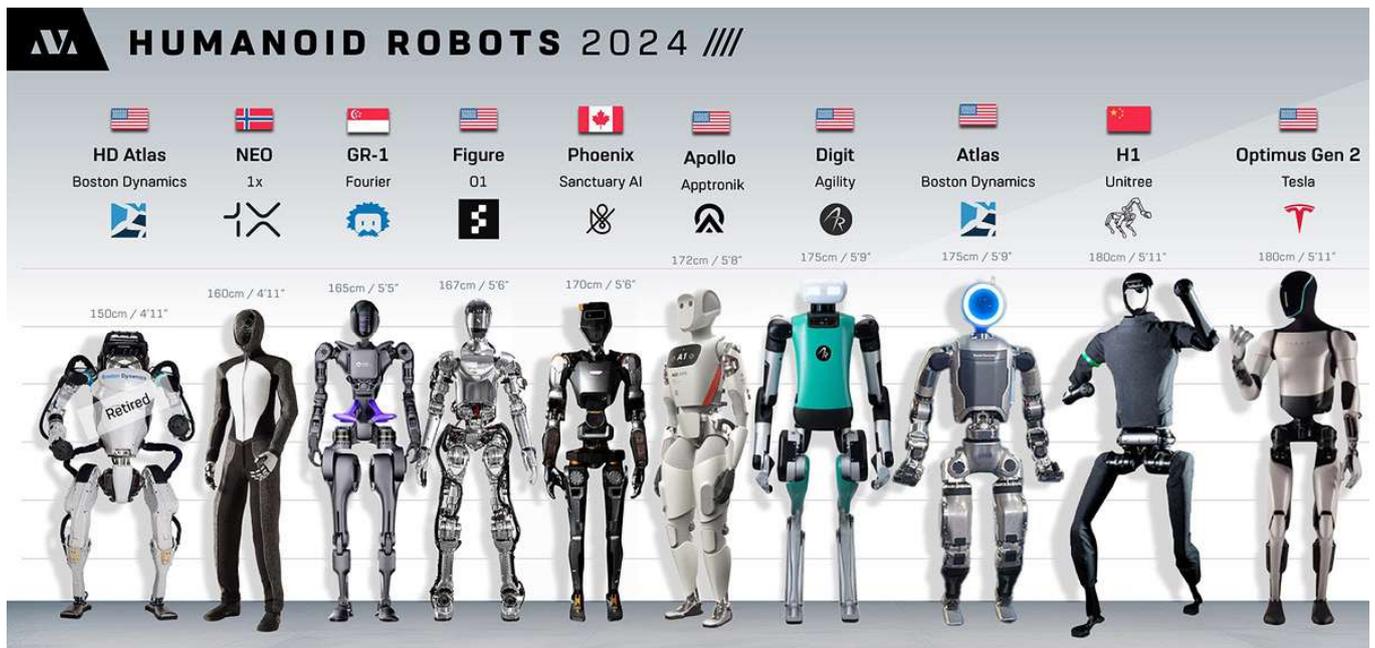
로봇 트렌드 분석:

# 휴머노이드, AI가 심장을 만나다



글, 사진 시작팀 여선동 주임

사람의 형태를 모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공상 과학의 소재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몸을 얻고 우리의 일터와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휴머노이드는 고도화된 AI, 전신 제어 기술, 정밀 센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작업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범용적인 동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번 트렌드 분석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도약과 활용분야,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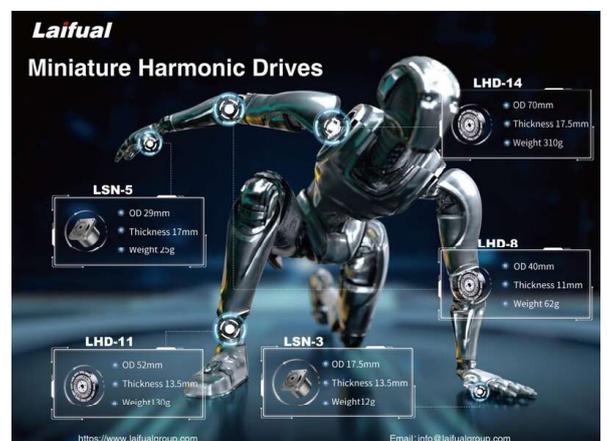
출처: 서울대 공대 웹진(134호). 휴머노이드 로봇 보행 기술 및 개발 동향. (2025.03)

## 1.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

휴머노이드 기술은 수십 년간 연구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 관심이 확대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기술적 진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1-1. 하드웨어의 혁신

과거 로봇의 움직임은 무게와 구동 효율 문제로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고성능 액추에이터 기술이 발전하며 관절이 더 강력해지고 경량화되었습니다. 특히 모터, 기어박스, 센서가 통합된 모듈형 관절 설계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휴머노이드가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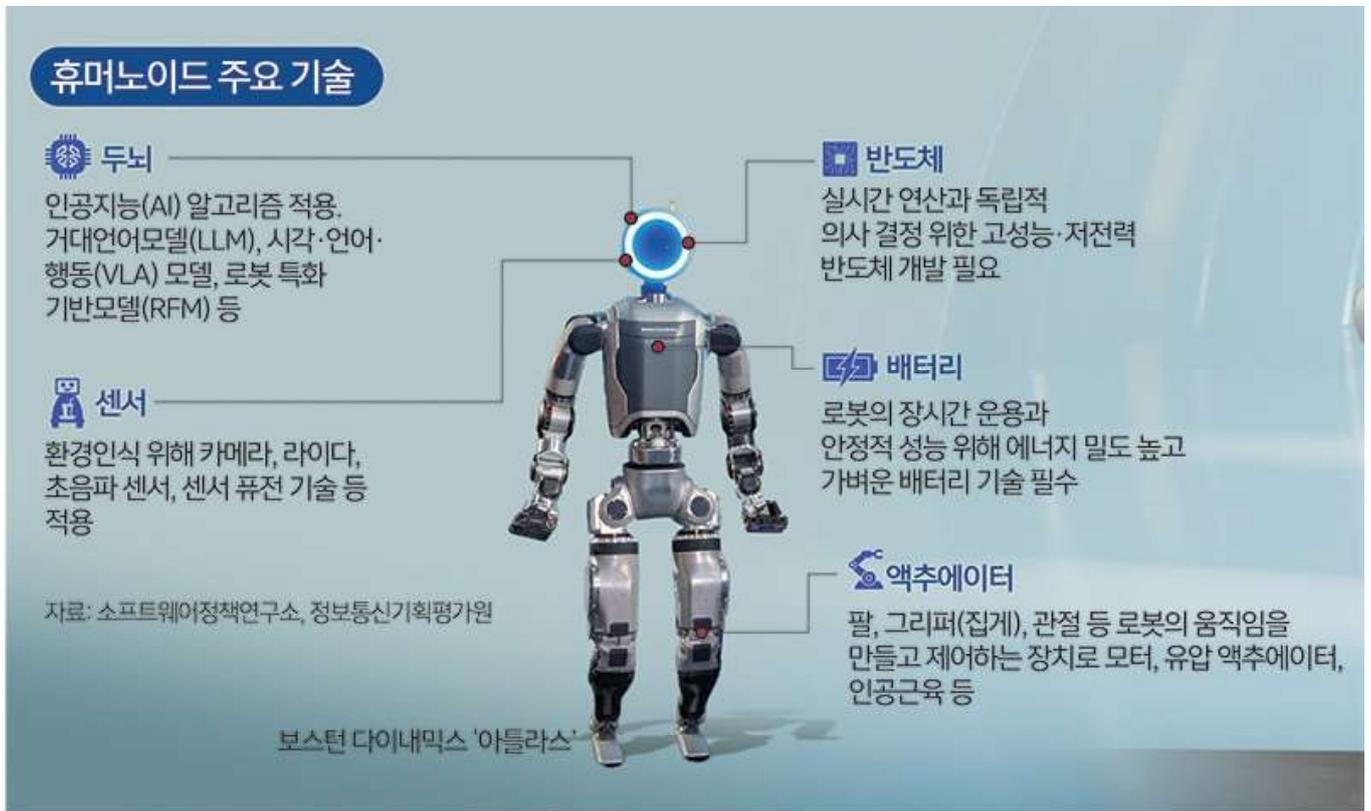
출처[<http://laifualgroup.com>]

## 1-2. AI 모델 적용을 통한 소프트웨어 혁명

휴머노이드가 진정한 ‘지능’을 갖게 된 결정적 전환점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적용입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처음 마주한 환경에서도 사람의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스스로 복잡한 작업을 계획 및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시연하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행동을 학습하는 ‘모방 학습’ 기술은 로봇의 학습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결하고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 2. 휴머노이드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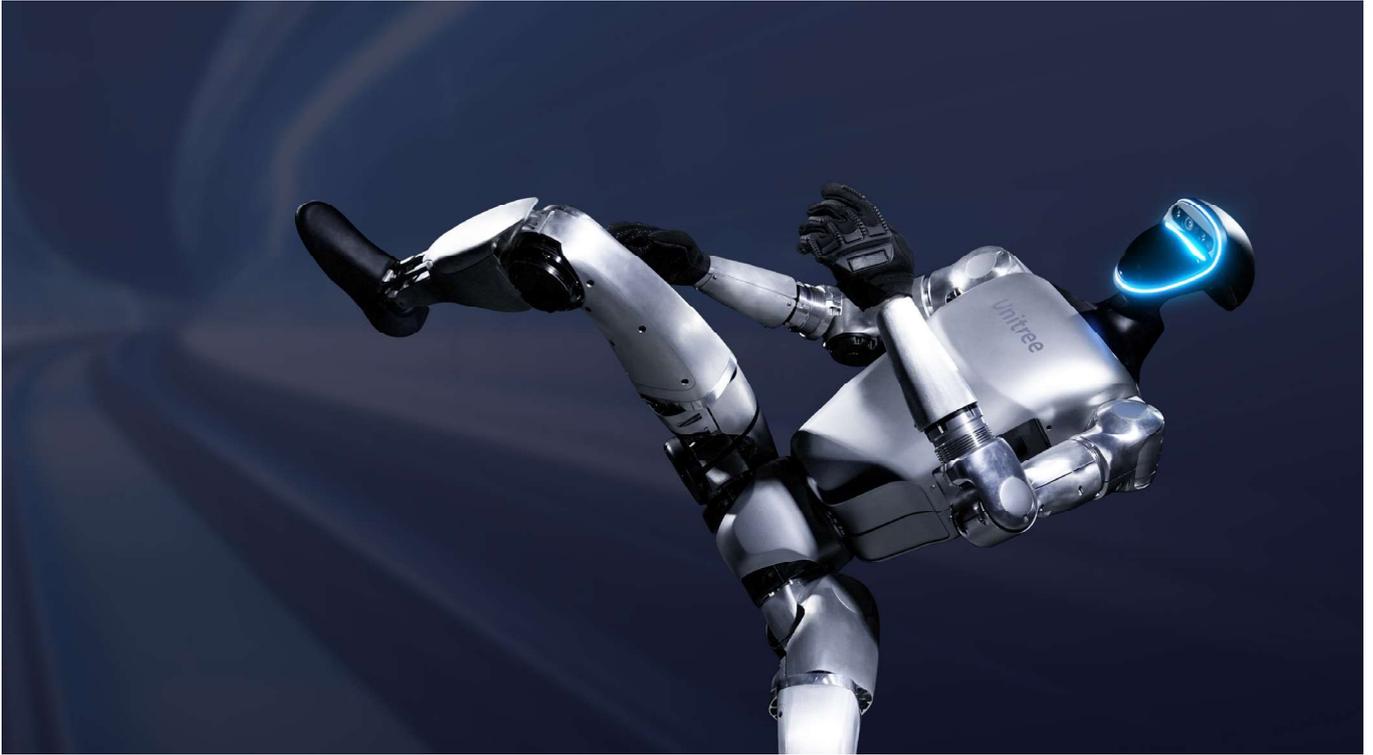
휴머노이드가 다양한 환경에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출처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 2-1. 동적 균형 제어(Dynamic Balance Control)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가장 큰 난제는 균형이었습니다. 기존의 ‘ZMP(Zero Moment Point)’ 기반 제어 방식이 정적인 환경에서는 유효했지만, 미끄러운 지면이나 외부 충격에는 취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 동역학 모델 기반의 ‘모델 예측 제어(MPC)’나 ‘강화 학습(RL)’과 같은 동적 균형 제어 기술이 도입되며, 로봇은 수만번의 실패 경험을 통해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전신 움직임을 통해 동적 평형 상태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달리기, 점프, 외부 충격 대응 등 더 복잡하고 다양한 동작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WeGo 로보틱스 공식 홈페이지]

## 2-2. 정교한 파지 및 조작

사람의 손은 도구를 사용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방한 휴머노이드의 '다자유도 손(Multi-DOF Hands)'은 빠르고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며, 손가락 끝단의 고밀도 촉각 어레이 센서와 결합해 단순히 물건을 잡는 것을 넘어 힘의 세기와 미끄러짐을 감지하여 깨지기 쉬운 물건도 부드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15508247>), (2025.06.16). 글로벌 '휴머노이드' 휩쓰는 美·中··· 한국, 'K 연합' 출사표]

## 2.3 멀티모달 AI 통합

사람이 눈과 귀, 피부로 주변을 파악하듯, 휴머노이드는 멀티모달 AI를 통해 시각, 청각, 촉각 센서로 받아들인 정보를 융합하여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위의 빨간 컵을 집어와”라는 명령을 들으면, 시각 센서로 컵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며, 컵을 잡을 때는 촉각 정보를 활용해 적절한 힘으로 파지합니다. 즉, 언어 이해, 환경 인지, 조작 계획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복합적 사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3.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활용 분야

휴머노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범용성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라면 있는 공간과 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기존 인프라 변경없이 곧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3-1. 제조 및 물류 시스템의 스마트화

휴머노이드는 복잡한 조립 라인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며 일정한 정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 환경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스스로 생각하며 분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장 자동화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20250615508247>)].(2025.06.16). 글로벌 ‘휴머노이드’ 힙쓰는 美·中… 한국, ‘K 연합’ 출사표]

### 3-2. 헬스케어 및 안전

휴머노이드는 간병이나 돌봄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며 인력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전 및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 현장부터 우주 및 심해 탐사 등 다양한 극한 환경에 투입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 3-3. 소매 및接客 서비스

공항, 상점, 안내 데스크 등에서 고객 응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길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매장 관리와 더불어 고객 데이터 기반 선호 분석을 통해 니즈에 딱맞는 상품을 추천하여 소매 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 4.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과제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윤리적, 사회적 논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4-1. 사회적 수용과 ‘언캐니 밸리’

로봇이 사람과 너무 흡사해지면 오히려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현상을 간과할 순 없습니다. 로봇과 동료가 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행동 설계 등에서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4-2. 일자리 재편과 새로운 역량 확보

휴머노이드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때, 우리는 이를 관리하고, AI를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개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4-3. 윤리적 기준과 책임 소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법적 책임을 로봇 제조사, 프로그래머, 사용자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규 마련이 서서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의 부정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기술적 안전장치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 Writing

이달의 Best Cut & Writing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단합이란 바로 이런것!

일상의 작업복을 잠시 벗어두고(일부는 낚시복이나 편한 복장이지만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배 위에 올라탄 모습에서 활력이 느껴집니다. 함께 손맛도 보고 맛있는 것도 나누며 그간의 직무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 '베테랑'의 친구 조화

기술을 전수하고 배우는 현장의 선후배 관계가 딱딱한 사무실이 아닌, 이런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이라 보기 좋습니다. "복잡한 도면과 설계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회식자리에서 팀워크를 충전하는 EV스트럭처팀의 기분 좋은 밤!"

## 오피스질친 中 자율제조기술팀 김성찬 주임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일하는 방식과 성향도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사소한 순간부터 라인 개발 프로젝트처럼 긴지만 고민까지 서로의 생각을 기꺼이 나누며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팀원'이라는 말보다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 화신영리더 中 마케팅2팀 권태윤 책임

내 자신이 주저 않아 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업무든 운동이든 취미든 뭐든 말이죠. 왜 달려나가요? 그냥오 (JUST)!!! 생각하고 뛰면 늦습니다. 뛰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으로! 저스드런!

# 사우동정 [사우들의 동정과 경조사 등을 전합니다!]



## 탄생을 축하합니다!

2025년 7월 24일	EV스트럭처팀	서경화 사원	득녀
2025년 7월 24일	생관자재팀	황예슬 선임	득남
2025년 8월 02일	화신경공 생산1팀	도영록 사원	득남
2025년 8월 04일	설비관리2팀	임지선 사원	득남
2025년 8월 04일	시작팀	이형규 책임	득남
2025년 9월 01일	생산2부	경안국 사원	득남
2025년 9월 11일	물류관리팀	김치훈 책임	득녀
2025년 9월 12일	전략경영팀	유중윤 주임	득남
2025년 9월 15일	PM팀	조건호 책임	득녀
2025년 10월 07일	생산1부	구분주 사원	득녀
2025년 11월 06일	설비관리3팀	조희제 조장	득녀
2025년 12월 19일	품질팀	손기복 책임	득녀
2025년 12월 25일	글로벌스트럭처팀	정동훈 책임	득남



## 결혼을 축하합니다!

2025년 9월 14일	화신 생산1부 조립2반 이상훈 사원	결혼
2025년 9월 20일	화신 신차품질팀 윤강혁 책임 장녀	결혼
2025년 9월 27일	화신경공 개발팀 한찬영 주임	결혼
2025년 9월 28일	화신 EV스트럭처팀 이경희 반장 아들	결혼
2025년 10월 18일	화신경공 생산2팀 생산3반 김용호 사원	결혼
2025년 11월 01일	화신 품질관리팀 박용현 사원	결혼
2025년 11월 08일	화신 선행연구팀 이효한 사원	결혼
2025년 11월 15일	화신 PM팀 허무현 주임	결혼
2025년 11월 16일	화신 생산1부 용접1반 이상훈 사원	결혼
2025년 11월 16일	화신 생산1부 조립2반 김중인 사원	결혼
2025년 11월 22일	화신 설비관리1팀 신상윤 주임	결혼
2025년 11월 22일	화신경공 생산1팀 생산1반 김태영 사원	결혼
2025년 11월 29일	화신 제품설계2팀 윤보국 주임	결혼
2025년 12월 07일	화신 예산경장 품질팀 김중국 책임 딸	결혼
2025년 12월 21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장문규 사원	결혼
2026년 01월 04일	화신 생산2부 용접3반 도한얼 사원	결혼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리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 새벽의 약속

2026년의 첫 햇살이 낮은 담벼락을 넘어 당신의 어깨 위에 내려앉습니다.  
겨울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그 햇살 속엔 이미 봄의 씨앗이 숨겨져 있지요.

작년에 다하지 못한 일들은 저는 해에 실어 멀리 보냈으니 마음 쓰지 마세요.  
새해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이라는 가장 다정한 기회를 선물하러 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침 이슬이 꽃잎을 적시듯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다짐 하나 소중히 품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어나듯 당신의 정성 어린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덧 커다란 숲이 되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올해는 당신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당신다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발행일 2026년 1월 13일 / 통권 제74호 발행인 정서진, 장의호 | 편집인 허규학 | 발행처 사보편집부  
발행처 총무팀 기획·취재 총무팀 T.054-330-5147 majhur@hwasin.co.kr  
「하늘타리」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사보기자단

총무팀 허규학 책임 / 생산1팀 김명원 책임 / 시작팀 여선동 주임 / 글로벌마케팅팀 이동규 책임 / 마케팅2팀 권태운 책임 / 설비관리2팀 권민재 주임 /  
자율제조기술팀 김성찬 주임 / 재경팀 정현아 주임 / 생관물류팀 전진호 책임 / 글로벌기획팀 이동훈 주임 / 업무팀 양성련 주임